

이제는 떨 수 있어요!



본 행사는 방송인 김종찬의 사회로 개회사 박길수 협회 경기도지회 회장, 격려사 임창열 경기도지사, 축사에 이어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심장수술학생의 감사편지 낭송과 심장질환 검진사업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부천세종병원 박영관 원장의 특

초,중,고등학생들이 달리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신문지상이나 TV, 뉴스 등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돌연사라고 하는데 대부분 심장병이 그 원인이다. 특히 선

천성 심장병의 경우 심장수술의 발달로 적당한 시기에 수술만 하면 치료가 가능하므로 어린이에 대한 심장병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즉, 조기발견만이 완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밝게 성장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5월 19일 수원시민회관에서 임창열 경기도지사, 이시백 협회 회장, 경기도청 임직원, 수술학생 및 학부모, 시군구 교육청 인사 등이 참석하여 “초등학교 1학년생 심장질환검진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기가수 신형원, 김혜연, 댄스그룹 N-FIVE의 공연과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펼쳐졌다. 그동안 검진사업을 통해 수술대상자 108명과 요관찰자 474명을 발견하였고 수술자로 판명되

어 수술한 학생 108명은 건강한 삶을 되찾아 학교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지난 91년 경기도 모자보건 특수시책사업으로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장질환검진 사업은 2000년도에 10주년을 맞아 경기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 전부(165,000명)를 검진하게 되었다. 이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일로써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찬사속에 추진 중에 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심장병 검진이 그간 일부지역에 그치던 것을 경기도내 전수검진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전지역 학생이 받는 심장병 검진은 어린 학생들이 건강한 도민으로 성장,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리라 기대한다.

〈편집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하일초등학교 6학년 이이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때인 1995년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앞섰습니다. 저는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계절마다 잔병을 앓고 체격도 몹시 마른 편이었습니다. 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빨리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감기나 잔병도 없어지고 체중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빨리 걷거나 뛰는 데에도 별 무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것을 즐기며,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종락-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0년 5월 19일 광명시 하일초등학교 6학년 이이섭